



담당 부서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

김만호

02-2133-8150

도로관리팀장

윤인식

02-2133-8152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6쪽

관련 누리집
(서울시안전누리)

<http://safecity.seoul.go.kr>
상단<재난대비시설>→<제설시설물>

차도는 물론 보도이면도로까지 제설 강화...서울시, 제설종합대책 본격 가동

-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 내년 3월15일까지...33개 기관 협력, 폭설 피해 예방·복구 총력
- 시민의 발 닿는 보도·이면도로 제설 대폭 강화...인력·수작업→'기계식 제설'로 대폭 전환
- 차도 제설효과↑ 고강도 고무삽날, 자동제설장비 등 확대...상습결빙구간 경고시스템 운영
- 제설작업의 신속·연속성 강화 위해 이동식 전진기지 추가 설치...소포장 제설제 확대 보급
- 폭설시 차량고립 등 피해 없도록...주간선도로 17개 구간 34^{km} 교통통제, 교통대책 운영

올겨울 서울시는 '폭설은 있어도 불편함은 없다'라는 각오로 강화된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,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. 특히 올겨울부터는 시민의 발이 닿는 보도와 이면도로 등 일상생활 밀접한 곳까지 폭넓게 눈을 치우는 대책이 마련돼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서울시는 올겨울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간을 '겨울철 제설대책기간'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○ 기간 중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. 시·자치구·도로사업소·서울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이 협력해 눈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.

- 적설량에 따라 1단계(적설량 5cm 미만 예보) ▶ 2단계(적설량 5cm 이상 예보 / 대설주의보 발령) ▶ 3단계(적설량 10cm 이상 예보 / 대설경보 발령)로 단계를 구분해 대응한다.

- 시민생활에 밀접한 보도·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이 대폭 강화되고, 차도 제설에 대한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고강도 고무삽날 등 새로운 장비가 도입된다. 도로열선 등도 설치 확대된다.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포장 제설제를 확대 보급하고, 이동식 전진기지도 추가로 설치해 제설작업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높인다. 폭설에 따른 차량고립 등의 피해가 없도록 교통대책 등도 마련해 종합적·체계적으로 대응한다.

<시민의 발 닿는 보도·이면도로 제설 대폭 강화·인력·수작업 → 기계식 제설로 대폭 전환>

- 우선 올겨울부터 시민의 발이 닿는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이 대폭 강화된다. 시는 그간 차도 위주의 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을 차도 수준으로 끌어올려 눈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.
-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보도와 이면도로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제설의 난이도가 높으나, 제설작업을 주로 동주민센터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폭설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.
- 기존 인력·수작업 제설 방식에서 맞춤형 장비를 대폭 투입한 '기계식 제설'로 대폭 전환한다. 이를 위해 보도·이면도로 제설장비 300여대를 추가 도입해 총 500여대를 운영할 계획이다. 시민의 발이 닿는 대부분의 보행 공간을 보도용 제설장비로 제설해 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보도용 제설장비는 성인의 보행속도(4km)와 유사한 4~5km 속도로 이

동하면서 전면에 부착된 브러시로 눈을 양옆으로 쓸어내고, 동시에 후면에 부착된 친환경 제설제 살포기를 통해 눈을 녹인다.

- 계단·급경사지·좁은 골목 등 장비 접근이 어려운 구역은 기존처럼 인력을 투입해 제설한다.



▲ 보도용 제설장비



▲ 이면도로 제설장비

- 아울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제설작업을 지원한다. 폭설시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보도용 제설장비를 통한 제설작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.

<차도 제설효과↑ 고강도 고무삽날, 자동제설장비 등 확대·상습결빙구간 경고시스템 운영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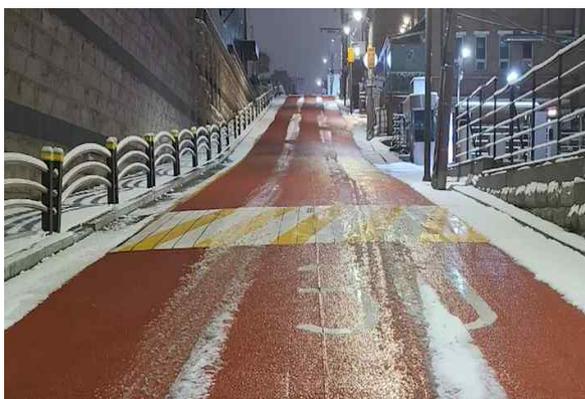
- 한파와 폭설로 차도에 얼어붙은 눈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의 장비도 강화한다. 도로파손의 우려가 적으면서도 제설효과가 탁월한 '고강도 고무삽날'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설차량에 설치해 운영한다. 차도에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도 깨끗하게 치울 수 있어 간선도로의 제설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기존의 일반 고무삽날은 강도가 약해 결빙 제거가 어려웠고, 철재삽날은 결빙 제거 효과는 좋으나 도로가 쉽게 파손되는 단점이 있었다.
- 시는 주요 간선도로 제설차량 383대 전량에 고강도 고무삽날을 장착하여, 2단계 대설주의보 이상의 제설작업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.



▲ 고강도 고무삽날을 장착한 제설차량

□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설취약구간에는 초기 제설 효과가 높은 자동제설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. 도로열선 200개소, 염수분사장치 41개소 등을 경사로, 응달진 곳 등에 새롭게 설치해 총 844개소의 자동제설장비를 운영,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.

- 도로열선은 강설 시 감지센서가 작동해 도로에 매설된 발열선으로 눈을 녹이는 장치로, 200개소에 추가 설치해 총 442개소에 운영한다.
- 염수분사장치는 강설 시 원격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노즐에서 액상 제설제를 살포해 제설하는 장치로, 올해 41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올해 총 402개소에 운영한다.



▲ 도로열선



▲ 자동염수분사장치

□ 터널, 지하차도 진출입로 등 도로구조상 결빙의 우려가 높은 21개소에 대해서는 '사고예방 경고시스템'을 설치해 운영한다. 도로 주변 환경을

분석해 결빙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차량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림으로써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.

<제설작업의 신속연속성 강화 위해 이동식 전진기지 추가 설치…소포장 제설제 확대 보급>

- 제설작업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'이동식 전진기지' 66개소를 주요거점에 설치 운영한다. 제설장비와 제설제를 신속히 투입·보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존 전진기지 80개소와 함께 총 146개소가 운영되어 폭설시 제설제 보충을 위한 차량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.
- 새롭게 설치되는 '이동식 전진기지'는 제설장비와 제설제 등을 모두 구비한 기존 전진기지과 달리, 별도의 시설 없이 차도변에 제설제를 실은 차량을 설치해 제설제를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이동식 임시시설로 운영된다.



▲ 전진기지



▲ 이동식 전진기지

- 누구나 필요할 때 제설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에 3~4kg의 소포장 제설제도 확대 보급한다. 제설함은 고갯길, 고지대 등 제설 취약지역에 설치돼 있는데, 제설제 1포당 25~30kg으로 운반 및 적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. 시는 소포장 경량화된 제설제를 확대 보급해 사용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.
- 서울시에는 총 1만4천여 개의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다. 제설함에는 염화

칼슘·소금·삽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. 제설함의 위치는 '서울안전누리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폭설에 차량고립 등 피해 없도록…주간선도로 17개 구간 34km 교통통제, 교통대책 운영도>

- 폭설에 따른 극심한 정체와 차량고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, 주요 도로의 교통 통제도 실시된다. 대상은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 중 경사가 심한 테헤란로, 관악로, 현릉로 등 17개 구간 34km이다. 해당 도로에 10cm 이상의 눈이 쌓이면, 경찰과 협조해 교통을 통제한다.
 - 시는 폭설에 따른 교통통제 시,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에 반영하여 통제에 따른 시민피해와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.

- 대설특보(주의보·경보) 발령에 대비한 대중교통 수송대책도 운영된다.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집중배차하고, 막차 시간은 2단계 대설 주의보에는 30분, 3단계 대설경보에는 최대 1시간까지 연장한다. 시내 버스는 노선별 특성 및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행된다.
 - 시는 도로전광표지(VMS)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(BIT)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교통·재난 정보를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.

-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“이상기후로 인한 예기치 못한 폭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, 보도와 골목길 등 일상생활 공간에 대한 제설도 꼼꼼히 챙겨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면서 “시민 여러분들도 내 집, 내 점포 앞에 눈은 쓸어주시고, 대설특보가 발령될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, 제설 차량 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